

# 수능국어의 매뉴얼, 「10하원칙」 적용 해설지

지문과 문제로 이루어진 한 세트의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지문 보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문까지만 읽는다. 일치형 문제에서는 선택지의 맨 앞부분 주어나 시간, 공간, 조건 등을 읽는다. 영역 기호가 있다면 그 기호 끝에 문제번호를 적는다.)

그런 후 지금까지 살펴본 동일한 문제 세트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문단 단위로 지문을 읽어 내려가며 (회독으로 푸는 과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문을 읽을 때 표시하는 요소에도, 선택지 오답 기준에도 10하원칙이 적용되었다.

## ‘글’(지문과 선택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10하원칙 6WH2CR+서술어					
지문 표시 요소 = 중심 내용 파악 요소 = 출제 요소					선택지 오진술 구성 원리 기본 :(서술어) 단순 불일치 (10하)요소 바꾸기 요소 간 관계 바꾸기
주체	= 상황	Who	누가	주로 주어(A가, A는, A의 ~	주체 바꾸기
대상 (상대)		What	무엇을	주로 목적어(A를), 주어(A란), 부사어(A에 대해), 개념, 상대	대상 바꾸기 (주체와 대상의 방향 바꾸기)
시간		When	언제	배경(변화할 때 주의)	시간 바꾸기, 선후 바꾸기
공간		Where	어디서	배경(변화할 때 주의)	공간 바꾸기, 공간과 공간 바꾸기
원인 (과거)		Why	왜	~이므로, ~때문에	원인 바꾸기, 인과 바꾸기
목적 (미래)		Why	왜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자	목적 바꾸기
수단, 방법		How	어떻게	~를 통해, ~함으로써	수단 바꾸기, 목적과 수단 바꾸기
조건		Condition	상황과 맥락을 구체화	A의 경우, A라면, A라 하더라도	조건 바꾸기
기준		Criterion		A에 따라	기준 바꾸기
관계		Relation	상황과 맥락을 구체화	- 비유·유추 관계 - 상하(포함) 관계 - 양자 관계(A는 B보다 크다) - 삼자 관계(A와 B는 반비례, A와 C는 비례) - 상관 관계와 인과 관계 - 전제 결론 관계	관계 바꾸기 - 문장 구조 관계 바꾸기 : 지문이나 보기에서 (A는) (B와 C를) 선지에서 (A와 B는) (C를) - 비교의 자리 바꾸기 -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로 바꾸기

[2026년 6월 시행] **발문 중심으로 문제 1번~3번까지 먼저 본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읽기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읽기 전략으로는 SQ3R이 있다.

SQ3R은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암송하기’, ‘재검토하기’의 다섯 활동으로 진행된다. 먼저 제목, 목차, 요약문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예측한다. 그리고 훑어보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든다. 다음으로,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글을 읽는다. 읽은 후에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기억하며 암송한다. 마지막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읽은 내용을 재검토한다.

이 전략의 읽기 전 활동인 ‘훑어보기’와 ‘질문하기’는 능동적 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훑어보기는 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독자는 대강의 내용을 훑어봄으로써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내용을 찾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은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질문하기는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질문을 활용하면, 답을 찾으며 읽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또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질문하기의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하여 읽으면 독자의 능동성은 더욱 강화된다.

SQ3R에 ㉠새로운 활동을 추가한 여러 전략들도 제시되었다. 그중 하나는 ‘관점 바꾸기’를 추가한 전략이다. ‘관점 바꾸기’는 글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자의 입장이라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글의 순서를 짤 것인지, 어떤 내용 전달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며 읽는 활동이다. 저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는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에서는 ‘속고하기’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글을 읽은 뒤에 자신의 배경 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2**

2.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들어 있는 맨 끝문단에 문제 번호 2번 써두기. 아래 선택지는 읽지 않는다.
- ① 글을 읽은 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되뇌어 본다.
  - ② 읽기 전에 만든 질문에 대해 글에서 답을 찾아보며 읽는다.
  - ③ 글의 목차를 보며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예측해 본다.
  - ④ 저자가 의도한 대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읽어 본다.
  - ⑤ 글의 내용 중 어떤 것을 글의 첫머리에 배치하면 좋을지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읽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 다 읽은 후에 와서 풀 예정. 다만 아래처럼 대상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맨 앞 부분만 체크해 둔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문을 읽기 시작했다.

<보기>

◦훑어보기와 관련된 실험에서) A그룹에는 제목이나 요약문을 훑어보는 방법을 알려 주고, 그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도록 하고, B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글을 읽은 후 두 그룹의 이해도는 비슷했지만, 훑어보기를 적용해 읽은 A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은 B그룹보다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질문하기와 관련된 실험에서) C그룹과 D그룹으로 나누고, 글을 읽고 개념을 중심으로 기억하도록 했다. C그룹에만 개념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한 후 그 질문을 활용해서 글을 읽게 하였다. D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주 후에 글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측정한 결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읽은 C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은 D그룹보다 우수했다.

- ① A그룹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제목이나 요약문이 활용되었겠군.
- ②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읽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았던 것은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기 때문이겠군.
- ③ C그룹에 제공한 질문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겠군.
- ④ C그룹에 독자가 질문을 만들어 글을 읽도록 한다면 독자의 능동성은 질문을 제공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나겠군.
- ⑤ C그룹이 D그룹에 비해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었기 때문이겠군.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는 지문 읽기 직전에 아래 선택지 앞부분만 체크해 두었다가(훑어보기 과정) 지문을 문단별로 읽어 내려가면서 본다.

- ① ‘속고하기’는) 읽을 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활동이다.
- ② SQ3R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읽기 전략의 하나이다.
- ③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 파악과 기억이 중요하다.
- ④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은) SQ3R에 포함된다.
- ⑤ ‘관점 바꾸기’를 통해) 글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다.

‘독서론’처럼 쉬운 지문은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풀어도 체감상 속도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실수를 줄이고 본격적인 ‘독서 풀이 순서’의 기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풀이 순서’ 그대로를 적용해 보겠다. 주어진 문제의 순서대로 풀지 않고 지문의 흐름을 기준으로 푼다.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구성되므로 문단 단위로 읽어 내려가며 푼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읽기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읽기 전략으로는 SQ3R이 있다. **1번에 가면**

②③ 해당하니 정보 표시하고 오기 ->

SQ3R은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암송하기’, ‘재검토하기’의 다섯 활동으로 진행된다. **문단 주제문** (먼저) 제목, 목차, 요약문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예측한다. 그리고 훑어보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든다. (다음으로)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글을 읽는다. **읽은 후에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기억하며 암송한다. (마지막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읽은 내용을 재검토한다. **여기에서 괄호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체계를 잡고 눈에 잘 띄게 할 목적. 중간 내용은 쉬워서 별도 표시 없이 이해하고 넘어감.**

이 전략의 (읽기 전 활동인) ‘훑어보기’와 ‘질문하기’는 **능동적 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문단 주제문** (훑어보기는) 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독자는 대강의 내용을 훑어봄으로써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내용을 찾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은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질문하기는)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질문을 활용하면, **조건** 답을 찾으며 읽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또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질문하기의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하여 읽으면 **조건** 독자의 능동성은 더욱 강화된다.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 이 문단은 아마도 아까 훑어보았던 3번과 연결되어 있을 것. 3번을 풀고 온다.->**

SQ3R에 **① 새로운** 활동을 추가한 여러 전략들도 제시되었다. **문단 주제문** 그중 하나는 ‘관점 바꾸기’를 추가한 전략이다. (‘관점 바꾸기’는) 글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자의 입장이자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글의 순서를 짤 것인지, 어떤 내용 전달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며 읽는 활동이다. 저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는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에서는 (‘속고하기’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글을 읽은 뒤에) 자신의 배경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2번 ->**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 ① ‘속고하기’는) 글을 읽은 뒤에 읽을 글을 x 신중하게 선택하는 활동이다. (오진술 기준으로는 ‘시간’ 바꾸기)
- ② SQ3R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읽기 전략의 하나이다. **문단 o**
- ③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 파악과 기억이 중요하다. **문단 o**
- ④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은) SQ3R에 포함된다.
- ⑤ ‘관점 바꾸기’를 통해) 글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다.

2.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 ① 글을 읽은 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되뇌어 본다.
- ② 읽기 전에 만든 질문에 대해 글에서 답을 찾아보며 읽는다.
- ③ 글의 목차를 보며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예측해 본다.
- ④ 저자가 의도한 대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읽어 본다.
- ⑤ 글의 내용 중 어떤 것을 글의 첫머리에 배치하면 좋을지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읽는다. **o -> 7번 일치 문제로 가서 못 풀었던 선택지를 푼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보기>

· **‘훑어보기’와 관련된 실험에서**) A그룹에는 제목이나 요약문을 훑어보는 방법을 알려 주고, 그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도록 하고, B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글을 읽은 후 두 그룹의 이해도는 비슷했지만, 훑어보기를 적용해 읽은 A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은 B그룹보다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여기까지 읽은 후 선택지로 가서 이에 대한 실험에 진술을 읽고 풀고 온다.->**

· **‘질문하기’와 관련된 실험에서**) C그룹과 D그룹으로 나누고, 글을 읽고 개념을 중심으로 기억하도록 했다. C그룹에만 개념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한 후 그 질문을 활용해서 글을 읽게 하였다. D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주 후에 글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측정할 결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읽은 C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은 D그룹보다 우수했다. **선택지 3번으로 가기->**

- ① A그룹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제목이나 요약문이 활용되었겠군. **o**
- ②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읽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았던 것은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기 때문이겠군. **o**
- ③ C그룹에 **위 <보기>로 가기->** 제공한 질문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겠군. **o**
- ④ C그룹에 독자가 질문을 만들어 글을 읽도록 한다면 **조건** 독자의 능동성은 질문을 제공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나겠군. **x 동일 조건 속에서 서술부분 바꾸기(단순 불일치)**
- ⑤ C그룹이 D그룹에 비해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었기 때문이겠군. **o 지문 3문단으로 돌아가기 ->**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발문 중심으로 문제를 먼저 본다.**

(가)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5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하였다.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면서 9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이익(李瀾))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天命),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星命), 시세(時勢)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造命)으로 운명을 나누었다.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유길준은)

6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民)에 주목하였다.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있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박영효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國權)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를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고, 이후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다른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의 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4 7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선택지 배열을 보면 선택지마다 (가)와 (나)가 모두 나오므로 (나)지문 끝에 문제번호 4번을 써준다.**

- ① (가)는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를, (나)는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제시하였다.
- ② (가)는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③ (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를,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 ④ (가)는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를, (나)는 민권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을 서술하였다.
- ⑤ (가)는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를, (나)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였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 위치를 찾아 ㉠이 들어 있는 문단 끝에 문제번호 5를 써준다.(다만 문단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면 다음 문단에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다음 문단을 읽은 후 풀면 된다.)
- ① 지배층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노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였다.
  - ②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상화하였다.
  - ③ 양반이 노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약자로 여기는 태도를 반영하였다.
  - ④ 노비의 애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였다.
  - ⑤ 군센 의지를 지닌 노비의 행동을 부각하면서도 노비가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6. ㉡, ㉢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에서 (가)와 (나)의 위치를 찾고 (나)를 여백으로 끌어내서 문제번호 6을 써준다.
- ① ㉡는, ㉢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② ㉡는, ㉢가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③ ㉡는, ㉢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④ ㉡는, ㉢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⑤ ㉡는, ㉢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7. (나)의 '형평 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평 운동'이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문 끝에 문제번호 7 써주기.
- ① 형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 ②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③ 백정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었다.
  - ④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⑤ 일제의 억압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줄글 <보기> 문제는 '적용하기' 문제이므로 언제나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푼다. 다만 항상 선택지의 기호들에는 표시를 해두는 게 좋겠다.

〈보기〉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① <보기>의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나)의 김윤식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겠군.
- ② <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③ <보기>의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가)의 조선 시대의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겠군.
- ④ <보기>의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나)의 독립 협회의 주장은 모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⑤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가)의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 이렇게 하면 지문을 읽을 때 주체별로 표시하면서 읽었다는 생각이 든다.

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원래 어휘 문제는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떨어지므로 가장 나중에 푸는데, 이렇게 하나의 어휘에 대해서 묻는다면 풀어주고 가자. ㉠옆에 문제번호 9 써주기.(바꿈쓰기 문제도 그때그때 풀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준다)
- ① 우리 반은 오래도록 염원하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 ② 학교는 학생회에 기획부, 총무부, 체육부 등을 두고 있다.
  - ③ 그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
  - ④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 ⑤ 그의 판단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제 다음 쪽 동일 지문으로 간다.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 읽으러 가기 ->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와 목적어, 상황, 앞에 나온 '조건'(A의 경우, A일 때, A라면)에 괄호, 목적어나 수단 그리고 (주어,처럼 서술성의 조건) 주요 서술어에 밑줄.  
 이것은 고정된 것은 아니며, 내용이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자신의 편의에 따르면 된다.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생기면 앞 문장과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이해 안 되는 문단이 있으면 앞 문단과 대응해 보기,

끝 문단 읽고 주제를 잘 모르겠다면 문단 끝부분과 연결해 보기.

( ~와/과)( ~을)을 이렇게 서술어를 공유하면서 두 개가 붙어 나오는 목적어들은 각각 분리해서 표시한다. 오독을 막고 정답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

(가)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5여기까지 읽으면 다음에 ㉠이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되므로 다음 문단을

읽은 후에 풀러 간다.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하였다.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면서 9풀러 다녀온다.->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5번 풀러 가기 -> 실학자 (가)의 (李瀾)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天命),)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星命),) 시세(時勢)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造命))으로 ((운명을)) 나누었다.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앞문단과의 관련성에서 보자면 '노비들의 신분'에 대한 시각 차이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

해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가)유길준은 6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民)에 주목하였다.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있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박영효는) 6풀고 오기->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國權)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 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을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고, 이후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다른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의 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4 -> 7 ->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 ① (가)는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를, (나)는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제시하였다.
- ② (가)는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③ (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를,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 ④ (가)는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를, (나)는 민권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을 서술하였다.
- ⑤ (가)는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를, (나)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였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배층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노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였다.
- ②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X (갓게 된 인식을) 형상화하였다. **주체 바꾸기**
- ③ 양반이 노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약자로 여기는 태도를 반영하였다.
- ④ 노비의 애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였다.
- ⑤ 군센 의지를 지닌 노비의 행동을 부각하면서도 노비가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6. ㉡, ㉢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관점' 문제인데, 상대방에 대한 언급은 '대상'이요, 결국 주어의 '입장'이면 됨.

- ① ㉡는, ㉢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이익(李翼)은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조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고, ㉢유길준은 ('민'을) 무지한 존재로 사회환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본문으로 다시 가가->
- ② ㉡는, ㉢가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③ ㉡는, ㉢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④ ㉢는, ㉡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⑤ ㉢는, ㉡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7. (나)의 '형평 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X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기준 바꾸기**
- ②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0 -> 명백한 답이므로 실전에서는 이하는 보지 않고 8번 줄글 보기 문제로->
- ③ 백정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을X 제도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었다.
- ④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X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은 잃음. 이전의 목적
- ⑤ 일제의 억압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목적 바꾸기**, '백정'이라는 주체도 빠짐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교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화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① <보기>의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나)의 김윤식의 주장은 양면적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겠군.
- ② <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은 법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③ <보기>의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가)의 조선 시대의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겠군.
- ④ <보기>의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나)의 독립 협회의 주장은 노비 소유 매매 비판 모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⑤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보기>에는 '문화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가 그 이후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임. 노예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노예 출신 작가가 문화적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님. 선후 바꾸기. (가)의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이룩은 노비제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기보다는 '신분은 세습이 아니라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음. 위한 능동적인 행위가 행위의 주체는 노비인가? 이익인가? 본문에 따르면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바꾸는 것은 개인의 빈부, 구천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제도의 변화'가 아님. 행위의 목적 바꾸기. 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

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4 문맥적 의미는 주로 '용언'을 내는데, 서술어의 자릿수를 염두에 두고 풀면 된다. 같은 문장 구조를 취하는 서술어를 고른 후 밑줄 친 어휘가 취한 동일 문장성분의 '의미'가 유사하면 된다.

- ① 우리 반은 오래도록 염원하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 ② 학교는 (학생회에 기획부, 총무부, 체육부 등을) 두고 있다.
- ③ 그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
- ④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 ⑤ 그의 판단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발문 중심으로 문제 먼저 본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

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플랫폼과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개방식 문제이다.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풀 수 있다.**
- ②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과 결부하여 구분하고 있다.
- ③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규명하고 있다.
- 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1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이다. 지문 읽기 직전에 아래 선택지마다의 앞부분(주요 주어부)에 표시. '흠어보기' 과정.**

- ①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 ②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다.
- ③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므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 ④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⑤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1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에서 기호의 위치 파악하기. 아래 선택지마다의 앞부분을 본 후 ①②번은 번호 좌측에 묶어준다. (흠어보기 과정) ㉠과 ㉡이 있는 지문 끝에 각각 문제번호 12 써두기.**

- ① ㉠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그 해악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본다.
- ② ㉠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이고,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결정의 근거이다.
- ③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④ ㉡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 ⑤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13. ㉔, ㉕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푼다. 지문에서 ㉔㉕의 위치와 <보기>에서 예시문의 맨 앞부분까지만 체크. 선택지도 맨 앞부분과 중간 기호 표시.**

<보기>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단,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

- ①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㉔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 ②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㉕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 ③ ‘을’이 작성한 글에서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㉕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군.
- ④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㉕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 ⑤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겠군.

**일치 문제(11번)의 맨 앞부분을 확인한 후 지문을 읽기 시작한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이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군!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일치 문제 앞부분 중 언급된 대상 있으면 풀고 오기 ->**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윤단 주제 문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 상황/대처-> 이에 정부는 (㉔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 ㉕(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㉔(이 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후 문단이나 문제들에서 이 두 ㉔와 ㉕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묻기도 있으니 앞으로 다른 지문을 독해하거나 문제를 풀 때 참고!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㉑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 풀고 오기 (일치문제 11번도) ->**

㉑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㉕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

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플랫폼과 인공 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다 읽었으니 10, 13 ->

10.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①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과 결부하여 구분하고 있다.
- ③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규명하고 있다.
- 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11. 뒷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①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문단 0**
- ②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다. **문단 0**
- ③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므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단순 불일치**
- ④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단 0**
- ⑤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1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 ① ㉠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그 해악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본다. **x ㉠은 가치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
- ② ㉠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을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이고, **x / ㉡은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결정의 근거이다. 0**
- ③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x-> 허위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대상의 자리 바꾸기**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④ ㉡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x**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 ⑤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13. ㉠, ㉡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5

<보기>

-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생성형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바로 아래 선택지로 가서 '갑'에 대해 풀고 온다. ->**
-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라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단,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

- ①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a**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0**

이에 정부는 (a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플랫폼 A는 여기에 해당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②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a**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0**

이에 정부는 (a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갑'은 여기에 해당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갑'은 식품 판매자로 주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③ '을'이 작성한 글에서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표현 제재 ㉡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 표현 자유에 부합하지 않겠군. 0**
- ④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표현 제재** 이는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 **표현 제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0**
- ⑤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 **제재는 위헌 결정**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겠군. **x 안 받겠군.**

발문 중심으로 문제 먼저 본다.

문제의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오늘 딱 정함!

1. 발문 읽고 기호의 위치 파악

2. 지문에 문제번호 써두기

3. 지문 읽기 직전에 일치 문제의 선택지 앞부분 (뒷부분 읽으면 지문 내용 읽을 때 헷갈려서 망함)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라플라스 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 결과로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15**

실생활에서 라플라스 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증이에 **㉤**도달한다. 라플라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소르계 수'로 표현된다. 오네소르계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오네소르계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계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가령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계 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 오네소르계 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 오네소르계 수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4. 뒷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이니 지문 읽기 직전에 아래 선택지 앞부분에 표시

- ①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액체에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 ②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표면적이 작다.
- ③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 ④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 ⑤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1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에 가서

㉣ 끝에 문제번호 15 표시

- ①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다.
- ② 작은 기포와는 달리, 큰 기포에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 ③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에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기포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④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의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
- ⑤ 처음의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을 다 읽은 후에 와서 본다.**

<보기>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다. 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문서를 인쇄하니 빨간색 잉크가 노즐에서 나오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끈적끈적해서,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하여 다시 인쇄하였다. 이 시점에 파란색 잉크는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이후 세 달이 더 지난 후에도 문서를 인쇄해 보았다.  
(단, 두 잉크를 내보내는 노즐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 ① 구입 당시의 빨간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는 대략 0.1에서 1.0 사이에 있었겠군.
- ②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가 더 커진 것이겠군.
- ③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는 변함이 없겠군.
- ④ 구입 당시와 달리, 두 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는 인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겠군.
- ⑤ 구입 후 다섯 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하였다면 파란색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될 수 있겠군.

17. 문맥상 ㉠~㉣와 바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뀔쓰기**

**문제는 그때그때 푸는 게 좋다. 내용이 선명해짐. 글 흐름을 끊지 않음. 별도 표시를 하지 않음. 문항이나 선택어에서도 ㉠~㉣이나 ㉠~㉣에 대해서 물으면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문 읽다가 만나면 풀 예정.**

- ① ㉠: 올라오는
- ② ㉡: 나타낼
- ③ ㉢: 이루어진
- ④ ㉣: 다다른다
- ⑤ ㉤: 맞춤으로써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풀러 다녀옴 ->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text{내부 압력} - (\text{외부 압력} + \text{표면 장력}) = 0$$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text{내부 압력} - \text{외부 압력} \approx \text{표면 장력}$$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관계'는 반드시 문제에서 물음.

$$\text{내부 압력} - \text{외부 압력} \approx 1 / \text{반지름}$$

**한 문단 읽었으니 일치 문제 14번 (일부) 풀러 다녀오기 ->**

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일치 문제 14번 (일부) 풀러 다녀오기 ->

라플라스 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 결과로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앞문단과의 관계로 본다면) 압력이 높은 곳(작은 방울)에서 낮은 곳으로. 15->

실생활에서 라플라스 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도달한다. 라플라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소르계 수'로 표현된다. (오네소르계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오네소르계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text{오네소르계 수} = \text{점도} / \text{표면 장력} \times \text{잉크 밀도} \times \text{노즐 지름}$$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

쇄가 가능하다. 다음 문단 첫문장도 인쇄 얘기에니 끝까지 읽은 후 문제 풀러 가기로.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 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가령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 오네소르게 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 오네소르게 수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4-⑤, 16, 17->

한 것은? 3

<보기>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다. / (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문서를 인쇄하니 빨간색 잉크가 노즐에서 나오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끈적끈적해서,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하여 다시 인쇄하였다. 이 시점에 (파란색 잉크는)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 이후 (세 달이 더 지난 후에도) 문서를 인쇄해 보았다.

(단, 두 잉크를 내보내는 노즐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14. 뒷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 ①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액체에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1문단 ○
- ②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표면적이 작다. 1문단 ○
- ③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2문단 ○
- ④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2문단 ○
- ⑤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X 언급하지 않은 것을 언급함. 단순 불일치.

- ① 구입 당시의 빨간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와 달리, X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는 대략 0.1에서 1.0 사이에 있었겠군.
- ②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X 첨가제를 넣어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가 더 커진 X 사인 것이겠군. <-정도는 분자
- ③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동일한 수치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는 변함이 없겠군. ○
- ④ 구입 당시와 달리, 두 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는 인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겠군. X
- ⑤ 구입 후 다섯 달이 지났을 때, X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하였다면) 파란색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될 수 있겠군. X

1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 ①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다. X 압력이 높은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비교대상의 자리 바꾸기
- ② 작은 기포와는 달리, 큰 기포에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X
- ③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에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기포 내부의 압력이 동일 X 하기 때문이다.
- ④ 새롭게 만들어진 처음 기포보다 반지름이 커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X 처음의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 ○
- ⑤ 처음의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X 같다.

17. 문맥상 ㉠~㉣와 바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올라오는 X
- ② b: 나타낼
- ③ c: 이루어진
- ④ d: 다다른다
- ⑤ e: 맞춤으로써

★반응이 좋으면 문학, 화학, 언매도 해 볼 예정★

16.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